

| | | | |
|---|---|------|---|
| 배포일 | 2018. 4. 11(수) / 총 3쪽 (붙임 1쪽) | 홍보담당 | 국제협력팀 고아라주임 02-6209-5958, 메일주소arako@arte.or.kr |
| 사업담당 | 시민교육팀 최지윤팀장(02-6209-5990, 메일주소jychoi@arte.or.kr) 이현아주임(02-6209-5997, 메일주소ringo@arte.or.kr) | | |
|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상암동,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 | |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시작 꿈다락에서 주말을 예술로 유쾌하게 일상을 활기치게 -오는 4월부터 전국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약900여개 프로그램 진행 -2017 꿈다락 만족도 조사 결과, '삶의 질 향상되고', '자신감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양현미, 이하 교육진흥원), 전국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함께하는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 주5일 수업제와 함께 시작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하며 8년차를 맞이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올해에도 음악, 미술, 연극·뮤지컬, 사진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소년이 예술가의 작업 분야, 철학 등을 경험하며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청소년X예술가 프로그램>,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어린이들이 생각과 느낌을 작곡으로 표현해보는 <꼬마작곡가>, ▲예술 관련 학과 및 대학에서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는 <주말예술캠퍼스> 등이 전국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관련 학과·대학 등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가족 간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하는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예술가와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 본인만의 여행 방식을 발굴해보는 <주말문화여행>과 더불어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문학적 접근을 통해 표현해보는 <일상의 작가>가 신규로 추진된다. 또한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중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상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작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한 가족은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고, 가족과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여했다.” 며, “이전에는 깊게 대화 한다거나 같이 무언가를 하는 일이 없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생긴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교육진흥원이 진행한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만족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 항목에서 90.5%가 ‘만족스러웠다’ 고 응답했다. 프로그램의 성과 부문에서 94%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고 답했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로는 ‘자신감이 높아졌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는 답변이 각각 83.1%, 94%를 차지한 바 있다. * [붙임1] 참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운영정보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www.toy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영상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튜브채널(<https://goo.gl/yXgFAV>)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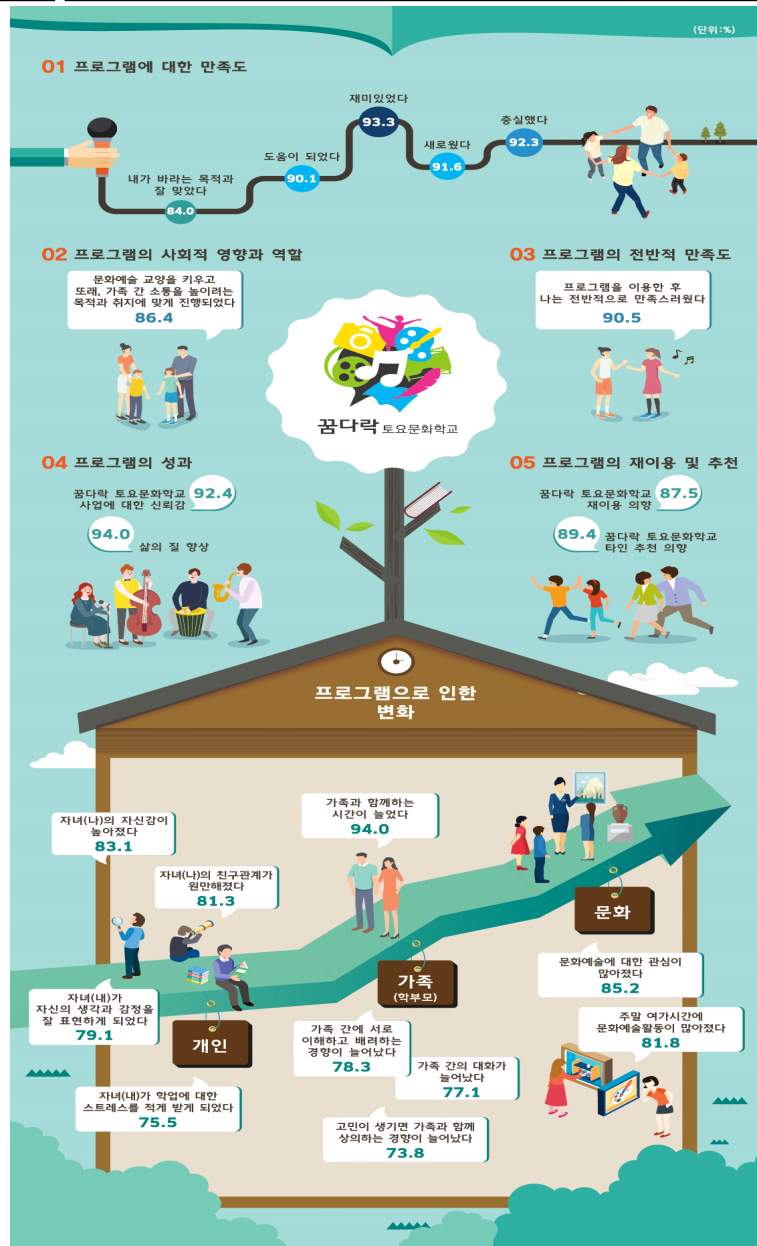
- 붙임: 1.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만족도 조사 연구 결과 인포그래픽스
2. (추가필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유형별 소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붙임1 2017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스



붙임2 2018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 유형별 소개

| 세부사업별 | 세부내용 |
|--------------------------|--|
|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 미술관 속 작품들은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쉬고 있고,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해 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술관 안팎을 탐색하며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내 손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다보면 시각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게 됩니다. |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 박물관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의 이야기는 다시 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만나 오늘의 이야기를 덧입히기도 하고 속속들이 뜯어보기도 하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
|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 그 동안 상상했던 예술가가 되어볼 수 있다면 어떤 예술활동을 해 보고 싶은가요?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안정적인 공간과 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술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
| 건축문화 프로그램 | 우리가 사는 집은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매일 걷는 길은 장소와 장소 간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집 앞 공원은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있는 건축적 요소를 탐색하고, 각자의 상상을 더해 새롭게 구현해 봅니다. |
|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 주말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말에 가족들과 훌쩍 떠나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예술가들과 함께 1박 2일의 여행을 떠나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재료들로 멋진 예술 작업을 해 봅니다. |
|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음악을 듣고 느끼고 경험하며 음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봅니다. 각자 소망했던 악기를 손에 쥐고 연주하다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덧 음악이 흐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선율에 담아보기도 합니다. |
| 청소년X예술가 프로그램 |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청소년만의 이야기를 예술가와 함께 꺼내보고, 특유의 감성을 더해 작품으로 완성해 봅니다. 청소년 X 예술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영화, 연극, 음악, 글 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만나 예술작업을 이어갑니다. |
|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 어린이들에게는 각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확고한 예술세계와 개성을 가진 시각예술 작가들이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어린이들의 세계는 드로잉, 사진, 설치, 이야기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발산하게 됩니다. |

| 세부사업별 | 세부내용 |
|---|---|
|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 <p>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도 마음속에는 늘 음악이 흐릅니다. 악보를 그릴 수 없어도 선율과 리듬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악기 연주자와 작곡가들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작곡하고, 작곡한 음악을 관객들과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p> |
|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 <p>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리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술과 음악, 문학과 무용, 영상과 퍼포먼스 등 예술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일이 가능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가 아닌 둘, 둘이 아닌 셋처럼 더욱 큰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p> |
|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 | <p>일상을 함께 보내는 가족들이 일상, 감정, 생각 등을 상상력과 문학적 기법을 통해 글로써 창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글로써 창작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모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더욱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p> |
|  지역연계 프로그램 | <p>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단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p> |
|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 <p>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 미술, 공연 등 분야 또는 세부 장르별 예술작품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p> |